Java로 구현한 Diff

|  |  |
| --- | --- |
| test\_from4.txt (21,139 바이트) | test\_to4.txt (21,681 바이트) |
| 허새전  박지원  허새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새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새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새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새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벽씩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새이 곧 벽씩의 집을 찾아갔다. 허새은 벽씩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을 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벽씩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허새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벽씩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새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구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새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벽씩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 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새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새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새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새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새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사람이 살 만한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 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새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새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새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새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해서 허새 앞에 줄이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새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새은 몸소 이천 명이 1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새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새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배고프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새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벽씩에게갚을 것이다."  허새이 가서 벽씩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벽씩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새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말이오.만 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벽씩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벽씩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허새이 잔뜩 역저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벽씩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허새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벽씩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벽씩는 비로소 그의 성이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벽씩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 주려 했으나, 허새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벽씩는 허새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벽씩는 그 때부터 허새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새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벽씩가 5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새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뭍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뀌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새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벽씩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자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벽씩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벽씩는 본래 이완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 대장이 되어서 벽씩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벽씩가 허새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 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벽씩만 데리고 걸어서 허새을 찾아갔다. 벽씩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새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새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벽씩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새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새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새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새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새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뽑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새은 간 곳이 없었다. | 허생전(許生傳)  박지원(朴趾源)  허생은 묵적골(墨積洞)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雲從街)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揖)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兩)을 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구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 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 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樂)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생 앞에 줄이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竹]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말이오.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저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 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변씨는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 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변씨가 5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利)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뭍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뀌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자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拙修齋) 조성기(趙聖期) 같은 분은 적국(敵國)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磻溪居士) 유형원(柳馨遠) 같은 분은 군량(軍糧)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九王)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李浣) 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 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委巷)이나 여염(閭閻)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 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異人)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禮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抪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뽑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  |
| --- |
| 결과-version 0- diff\_print\_0 (); |
| Diff(EQUAL,"﻿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전")  Diff(INSERT,"(許生傳) ")  Diff(EQUAL,"  박지원")  Diff(INSERT,"(朴趾源) ")  Diff(EQUAL,"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묵적골")  Diff(INSERT,"(墨積洞)")  Diff(EQUAL,"에 살았다. 곧장 남산")  Diff(INSERT,"(南山)")  Diff(EQUAL,"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  Diff(INSERT,"(科擧)")  Diff(EQUAL,"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합니까?"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Diff(INSERT," ")  Diff(EQUAL,"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Diff(INSERT," ")  Diff(EQUAL,"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Diff(INSERT," ")  Diff(EQUAL,"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Diff(INSERT," ")  Diff(EQUAL,"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Diff(INSERT," ")  Diff(EQUAL,"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Diff(INSERT," ")  Diff(EQUAL,"버렸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거리에 서로 알")  Diff(INSERT," ")  Diff(EQUAL,"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  Diff(INSERT,"(雲從街)")  Diff(EQUAL,"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卞氏)")  Diff(EQUAL,"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곧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의 집을 찾아갔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를 대하여 길게 읍")  Diff(INSERT,"(揖)")  Diff(EQUAL,"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  Diff(INSERT,"(兩)")  Diff(EQUAL,"을 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Diff(INSERT,". ")  Diff(EQUAL,"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구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Diff(INSERT," ")  Diff(EQUAL,"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 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  Diff(INSERT,"(安城)")  Diff(EQUAL,"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  Diff(INSERT,"(三南)")  Diff(EQUAL,"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  Diff(INSERT,"(濟州島)")  Diff(EQUAL,"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Diff(INSERT," ")  Diff(EQUAL,"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Diff(INSERT," ")  Diff(EQUAL,"사람이 살 만한")  Diff(INSERT," ")  Diff(EQUAL,"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Diff(INSERT," ")  Diff(EQUAL,"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 때, 변산")  Diff(INSERT,"(邊山)")  Diff(EQUAL,"에 수천의 군도")  Diff(INSERT,"(群盜)")  Diff(EQUAL,"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  Diff(INSERT,"(樂)")  Diff(EQUAL,"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  Diff(INSERT,"(大驚)")  Diff(EQUAL,"해서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 앞에 줄이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Diff(INSERT," ")  Diff(EQUAL,"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몸소 이천 명이 1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  Diff(INSERT,"[竹]")  Diff(EQUAL,"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  Diff(INSERT,"(長崎島)")  Diff(EQUAL,"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  Diff(INSERT,"(日本)")  Diff(EQUAL,"의")  Diff(INSERT," 속주(屬州)이다.")  Diff(EQUAL,"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  Diff(DELETE,""배고프다"")  Diff(EQUAL,"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  Diff(INSERT,"(富)")  Diff(EQUAL,"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Diff(INSERT,"(衣冠)")  Diff(EQUAL,"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에게")  Diff(INSERT," ")  Diff(EQUAL,"갚을 것이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가서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말이오.")  Diff(INSERT," ")  Diff(EQUAL,"만 냥이 어찌 도")  Diff(INSERT,"(道)")  Diff(EQUAL,"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Diff(INSERT,", ")  Diff(EQUAL,"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Diff(INSERT," ")  Diff(EQUAL,"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Diff(INSERT," ")  Diff(EQUAL,"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잔뜩 역저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Diff(INSERT," ")  Diff(EQUAL,"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Diff(INSERT," ")  Diff(EQUAL,"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비로소 그의 성이")  Diff(INSERT," ")  Diff(EQUAL,"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 주려 했으나,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Diff(INSERT," ")  Diff(EQUAL,"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  변씨")  Diff(EQUAL,"는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그 때부터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  Diff(INSERT,"  ")  Diff(EQUAL,"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  Diff(INSERT,"  ")  Diff(EQUAL,"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  Diff(INSERT,"  ")  Diff(EQUAL,"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가 5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  Diff(INSERT,"(物種)")  Diff(EQUAL,"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  Diff(INSERT,"(利)")  Diff(EQUAL,"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뭍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뀌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  Diff(INSERT,"(南漢山城)")  Diff(EQUAL,"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자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Diff(INSERT,"(拙修齋)")  Diff(EQUAL," 조성기")  Diff(INSERT,"(趙聖期)")  Diff(EQUAL," 같은 분은 적국")  Diff(INSERT,"(敵國)")  Diff(EQUAL,"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  Diff(INSERT,"(磻溪居士)")  Diff(EQUAL," 유형원")  Diff(INSERT,"(柳馨遠)")  Diff(EQUAL," 같은 분은 군량")  Diff(INSERT,"(軍糧)")  Diff(EQUAL,"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  Diff(INSERT,"(九王)")  Diff(EQUAL,"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본래 이완")  Diff(INSERT,"(李浣) ")  Diff(EQUAL,"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 대장이 되어서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에게 위항")  Diff(INSERT,"(委巷)")  Diff(EQUAL,"이나 여염")  Diff(INSERT,"(閭閻)")  Diff(EQUAL,"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가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  Diff(INSERT,"  ")  Diff(EQUAL,""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 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  Diff(INSERT,"(異人)")  Diff(EQUAL,"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  Diff(INSERT,"  ")  Diff(EQUAL,"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만 데리고 걸어서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을 찾아갔다. ")  Diff(DELETE,"벽씩")  Diff(INSERT,"변씨")  Diff(EQUAL,"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못 들은 체하고, ")  Diff(INSERT,"  ")  Diff(EQUAL,""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Diff(DELETE,"벽씩")  Diff(INSERT," 변씨")  Diff(EQUAL,"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Diff(INSERT,"(臥龍先生)")  Diff(EQUAL,"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  Diff(INSERT,"(三顧草廬)")  Diff(EQUAL,"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  Diff(INSERT,"  ")  Diff(EQUAL,""어렵습니다. 제이")  Diff(INSERT,"(第二)")  Diff(EQUAL,"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  Diff(INSERT,"(明)")  Diff(EQUAL,"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  Diff(INSERT,"(宗室)")  Diff(EQUAL,"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Diff(INSERT,"(勳戚)")  Diff(EQUAL," 권귀")  Diff(INSERT,"(權貴)")  Diff(EQUAL,"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  Diff(INSERT,"(大義)")  Diff(EQUAL,"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  Diff(INSERT,"(唐)")  Diff(EQUAL,"나라, 원")  Diff(INSERT,"(元)")  Diff(EQUAL,"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Diff(INSERT,"(國恥)")  Diff(EQUAL,"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  Diff(INSERT,"(諸侯)")  Diff(EQUAL,"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  Diff(INSERT,"(伯舅之國)")  Diff(EQUAL,"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  Diff(INSERT,"(禮法)")  Diff(EQUAL,"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  Diff(INSERT,"(抪髮)")  Diff(EQUAL,"을 하고 호복")  Diff(INSERT,"(胡服)")  Diff(EQUAL,"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뽑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  Diff(INSERT,"(喪人)")  Diff(EQUAL,"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  Diff(INSERT,"(樊於期)")  Diff(EQUAL,"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  Diff(INSERT,"(武靈王)")  Diff(EQUAL,"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  Diff(INSERT,"(大明)")  Diff(EQUAL,"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  Diff(DELETE,"새")  Diff(INSERT,"생")  Diff(EQUAL,"은 간 곳이 없었다.")  Diff(INSERT,"\_ |

|  |
| --- |
| 결과-version 1- diff\_print\_linenum(); |
|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EQUAL>  ﻿허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EQUAL>  전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INSERT>  (許生傳)  <from file line num : 1~4 to file line num : 1~4 EQUAL>  박지원  <from file line num : 4~4 to file line num : 4~4 INSERT>  (朴趾源)  <from file line num : 4~7 to file line num : 4~7 EQUAL>  허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EQUAL>  은 묵적골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INSERT>  (墨積洞)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EQUAL>  에 살았다. 곧장 남산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INSERT>  (南山)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EQUAL>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7~7 to file line num : 7~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7~11 to file line num : 7~11 EQUAL>  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11~11 INSERT>  (科擧)  <from file line num : 11~13 to file line num : 11~13 EQUAL>  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합니까?"  허  <from file line num : 13~13 to file line num : 13~13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3~13 to file line num : 13~13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3~21 to file line num : 13~21 EQUAL>  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from file line num : 21~21 to file line num : 21~21 INSERT>    <from file line num : 21~23 to file line num : 21~23 EQUAL>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3~23 INSERT>    <from file line num : 23~25 to file line num : 23~25 EQUAL>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from file line num : 25~25 to file line num : 25~25 INSERT>    <from file line num : 25~27 to file line num : 25~27 EQUAL>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from file line num : 27~27 to file line num : 27~27 INSERT>    <from file line num : 27~29 to file line num : 27~29 EQUAL>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  <from file line num : 29~29 to file line num : 29~2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9~29 to file line num : 29~2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9~31 to file line num : 29~31 EQUAL>  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from file line num : 31~31 to file line num : 31~31 INSERT>    <from file line num : 31~33 to file line num : 31~33 EQUAL>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from file line num : 33~33 to file line num : 33~33 INSERT>    <from file line num : 33~35 to file line num : 33~35 EQUAL>  버렸다.  허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EQUAL>  은 거리에 서로 알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INSERT>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EQUAL>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  <from file line num : 35~35 to file line num : 35~35 INSERT>  (雲從街)  <from file line num : 35~39 to file line num : 35~39 EQUAL>  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변씨(卞氏)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EQUAL>  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EQUAL>  이 곧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EQUAL>  의 집을 찾아갔다. 허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EQUAL>  은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EQUAL>  를 대하여 길게 읍  <from file line num : 39~39 to file line num : 39~39 INSERT>  (揖)  <from file line num : 39~41 to file line num : 39~41 EQUAL>  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  <from file line num : 41~41 to file line num : 41~41 INSERT>  (兩)  <from file line num : 41~43 to file line num : 41~43 EQUAL>  을 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from file line num : 43~43 to file line num : 43~43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43~43 to file line num : 43~43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43~47 to file line num : 43~47 EQUAL>  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INSERT>  .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EQUAL>  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EQUAL>  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EQUAL>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EQUAL>  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구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47~47 to file line num : 47~4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47~55 to file line num : 47~55 EQUAL>  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from file line num : 55~55 to file line num : 55~5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55~55 to file line num : 55~5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55~57 to file line num : 55~57 EQUAL>  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from file line num : 57~57 to file line num : 57~57 INSERT>    <from file line num : 57~59 to file line num : 57~59 EQUAL>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 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EQUAL>  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安城)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EQUAL>  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三南)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EQUAL>  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EQUAL>  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EQUAL>  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59~59 to file line num : 59~5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59~63 to file line num : 59~63 EQUAL>  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  <from file line num : 63~63 to file line num : 63~63 INSERT>  (濟州島)  <from file line num : 63~67 to file line num : 63~67 EQUAL>  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  <from file line num : 67~67 to file line num : 67~6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67~67 to file line num : 67~6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67~69 to file line num : 67~69 EQUAL>  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  <from file line num : 69~69 to file line num : 69~6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69~69 to file line num : 69~6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69~69 to file line num : 69~69 EQUAL>  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from file line num : 69~69 to file line num : 69~69 INSERT>    <from file line num : 69~71 to file line num : 69~71 EQUAL>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from file line num : 71~71 to file line num : 71~71 INSERT>    <from file line num : 71~71 to file line num : 71~71 EQUAL>  사람이 살 만한  <from file line num : 71~71 to file line num : 71~71 INSERT>    <from file line num : 71~79 to file line num : 71~79 EQUAL>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from file line num : 79~79 to file line num : 79~79 INSERT>    <from file line num : 79~81 to file line num : 79~81 EQUAL>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  <from file line num : 81~81 to file line num : 81~8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81~81 to file line num : 81~8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81~91 to file line num : 81~91 EQUAL>  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 때, 변산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INSERT>  (邊山)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EQUAL>  에 수천의 군도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INSERT>  (群盜)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EQUAL>  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91~91 to file line num : 91~9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91~107 to file line num : 91~107 EQUAL>  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  <from file line num : 107~107 to file line num : 107~107 INSERT>  (樂)  <from file line num : 107~111 to file line num : 107~111 EQUAL>  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  <from file line num : 111~111 to file line num : 111~11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11~111 to file line num : 111~11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11~115 to file line num : 111~115 EQUAL>  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  <from file line num : 115~115 to file line num : 115~11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15~115 to file line num : 115~11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15~117 to file line num : 115~117 EQUAL>  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EQUAL>  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INSERT>  (大驚)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EQUAL>  해서 허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17~117 to file line num : 117~11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17~121 to file line num : 117~121 EQUAL>  앞에 줄이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from file line num : 121~121 to file line num : 121~121 INSERT>    <from file line num : 121~125 to file line num : 121~125 EQUAL>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  <from file line num : 125~125 to file line num : 125~12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25~125 to file line num : 125~12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25~127 to file line num : 125~127 EQUAL>  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  <from file line num : 127~127 to file line num : 127~12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27~127 to file line num : 127~12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27~127 to file line num : 127~127 EQUAL>  은 몸소 이천 명이 1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  <from file line num : 127~127 to file line num : 127~12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27~127 to file line num : 127~12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27~129 to file line num : 127~129 EQUAL>  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INSERT>  [竹]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EQUAL>  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INSERT>  (長崎島)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EQUAL>  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INSERT>  (日本)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EQUAL>  의  <from file line num : 129~129 to file line num : 129~129 INSERT>  속주(屬州)이다.  <from file line num : 129~131 to file line num : 129~131 EQUAL>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  <from file line num : 131~131 to file line num : 131~13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31~131 to file line num : 131~13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31~135 to file line num : 131~135 EQUAL>  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from file line num : 135~135 to file line num : 135~135 DELETE>  "배고프다"  <from file line num : 135~137 to file line num : 135~137 EQUAL>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  <from file line num : 137~137 to file line num : 137~137 INSERT>  (富)  <from file line num : 137~137 to file line num : 137~137 EQUAL>  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from file line num : 137~137 to file line num : 137~137 INSERT>  (衣冠)  <from file line num : 137~153 to file line num : 137~153 EQUAL>  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  <from file line num : 153~153 to file line num : 153~153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53~153 to file line num : 153~153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53~155 to file line num : 153~155 EQUAL>  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from file line num : 155~155 to file line num : 155~15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55~155 to file line num : 155~15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55~155 to file line num : 155~155 EQUAL>  에게  <from file line num : 155~155 to file line num : 155~155 INSERT>    <from file line num : 155~157 to file line num : 155~157 EQUAL>  갚을 것이다."  허  <from file line num : 157~157 to file line num : 157~15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57~157 to file line num : 157~15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57~157 to file line num : 157~157 EQUAL>  이 가서  <from file line num : 157~157 to file line num : 157~157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57~157 to file line num : 157~157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57~161 to file line num : 157~161 EQUAL>  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from file line num : 161~161 to file line num : 161~161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61~161 to file line num : 161~161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61~165 to file line num : 161~165 EQUAL>  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  <from file line num : 165~165 to file line num : 165~16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65~165 to file line num : 165~16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65~167 to file line num : 165~167 EQUAL>  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말이오.  <from file line num : 167~167 to file line num : 167~167 INSERT>    <from file line num : 167~167 to file line num : 167~167 EQUAL>  만 냥이 어찌 도  <from file line num : 167~167 to file line num : 167~167 INSERT>  (道)  <from file line num : 167~169 to file line num : 167~169 EQUAL>  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from file line num : 169~169 to file line num : 169~16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69~169 to file line num : 169~16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69~171 to file line num : 169~171 EQUAL>  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from file line num : 171~171 to file line num : 171~171 INSERT>  ,  <from file line num : 171~173 to file line num : 171~173 EQUAL>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EQUAL>  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INSERT>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EQUAL>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INSERT>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EQUAL>  허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73~173 to file line num : 173~173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73~179 to file line num : 173~179 EQUAL>  이 잔뜩 역저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EQUAL>  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INSERT>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EQUAL>  허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EQUAL>  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79~179 to file line num : 179~17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79~183 to file line num : 179~183 EQUAL>  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from file line num : 183~183 to file line num : 183~183 INSERT>    <from file line num : 183~185 to file line num : 183~185 EQUAL>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from file line num : 185~185 to file line num : 185~18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85~185 to file line num : 185~18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85~185 to file line num : 185~185 EQUAL>  는 비로소 그의 성이  <from file line num : 185~185 to file line num : 185~185 INSERT>    <from file line num : 185~187 to file line num : 185~187 EQUAL>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from file line num : 187~187 to file line num : 187~187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87~187 to file line num : 187~187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87~187 to file line num : 187~187 EQUAL>  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 주려 했으나, 허  <from file line num : 187~187 to file line num : 187~18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87~187 to file line num : 187~18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87~189 to file line num : 187~189 EQUAL>  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from file line num : 189~189 to file line num : 189~189 INSERT>    <from file line num : 189~190 to file line num : 189~190 EQUAL>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0~190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0~191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EQUAL>  는 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EQUAL>  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EQUAL>  는 그 때부터 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EQUAL>  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1 EQUAL>  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from file line num : 190~190 to file line num : 191~192 INSERT>  <from file line num : 190~192 to file line num : 192~194 EQUAL>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from file line num : 192~192 to file line num : 194~195 INSERT>  <from file line num : 192~193 to file line num : 195~196 EQUAL>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6~197 INSERT>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EQUAL>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EQUAL>  가 5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93~193 to file line num : 197~19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93~195 to file line num : 197~199 EQUAL>  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  <from file line num : 195~195 to file line num : 199~199 INSERT>  (物種)  <from file line num : 195~195 to file line num : 199~199 EQUAL>  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  <from file line num : 195~195 to file line num : 199~199 INSERT>  (利)  <from file line num : 195~199 to file line num : 199~203 EQUAL>  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뭍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뀌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  <from file line num : 199~199 to file line num : 203~203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199~199 to file line num : 203~203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199~203 to file line num : 203~207 EQUAL>  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from file line num : 203~203 to file line num : 207~207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03~203 to file line num : 207~207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03~205 to file line num : 207~209 EQUAL>  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  <from file line num : 205~205 to file line num : 209~209 INSERT>  (南漢山城)  <from file line num : 205~207 to file line num : 209~211 EQUAL>  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자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拙修齋)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조성기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趙聖期)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같은 분은 적국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敵國)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磻溪居士)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유형원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柳馨遠)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같은 분은 군량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軍糧)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EQUAL>  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  <from file line num : 207~207 to file line num : 211~211 INSERT>  (九王)  <from file line num : 207~209 to file line num : 211~213 EQUAL>  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from file line num : 209~209 to file line num : 213~213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09~209 to file line num : 213~213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09~211 to file line num : 213~215 EQUAL>  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는 본래 이완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李浣)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 대장이 되어서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에게 위항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委巷)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이나 여염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閭閻)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EQUAL>  가 허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11~211 to file line num : 215~21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11~215 to file line num : 215~219 EQUAL>  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from file line num : 215~215 to file line num : 219~221 INSERT>  <from file line num : 215~217 to file line num : 221~223 EQUAL>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 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3~223 INSERT>  (異人)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3~223 EQUAL>  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3~225 INSERT>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만 데리고 걸어서 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을 찾아갔다.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5 EQUAL>  은 못 들은 체하고,  <from file line num : 217~217 to file line num : 225~227 INSERT>  <from file line num : 217~219 to file line num : 227~229 EQUAL>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from file line num : 219~219 to file line num : 229~229 DELETE>  벽씩  <from file line num : 219~219 to file line num : 229~229 INSERT>  변씨  <from file line num : 219~219 to file line num : 229~229 EQUAL>  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  <from file line num : 219~219 to file line num : 229~229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19~219 to file line num : 229~229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19~221 to file line num : 229~231 EQUAL>  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  <from file line num : 221~221 to file line num : 231~23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21~221 to file line num : 231~23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21~221 to file line num : 231~231 EQUAL>  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  <from file line num : 221~221 to file line num : 231~231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21~221 to file line num : 231~231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21~227 to file line num : 231~237 EQUAL>  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from file line num : 227~227 to file line num : 237~237 INSERT>  (臥龍先生)  <from file line num : 227~227 to file line num : 237~237 EQUAL>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  <from file line num : 227~227 to file line num : 237~237 INSERT>  (三顧草廬)  <from file line num : 227~229 to file line num : 237~239 EQUAL>  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from file line num : 229~229 to file line num : 239~241 INSERT>  <from file line num : 229~229 to file line num : 241~241 EQUAL>  "어렵습니다. 제이  <from file line num : 229~229 to file line num : 241~241 INSERT>  (第二)  <from file line num : 229~235 to file line num : 241~247 EQUAL>  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  <from file line num : 235~235 to file line num : 247~24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35~235 to file line num : 247~24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35~237 to file line num : 247~249 EQUAL>  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INSERT>  (明)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EQUAL>  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INSERT>  (宗室)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EQUAL>  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INSERT>  (勳戚)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EQUAL>  권귀  <from file line num : 237~237 to file line num : 249~249 INSERT>  (權貴)  <from file line num : 237~249 to file line num : 249~261 EQUAL>  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大義)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EQUAL>  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唐)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EQUAL>  나라, 원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元)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EQUAL>  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國恥)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EQUAL>  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諸侯)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EQUAL>  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  <from file line num : 249~249 to file line num : 261~261 INSERT>  (伯舅之國)  <from file line num : 249~253 to file line num : 261~265 EQUAL>  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  <from file line num : 253~253 to file line num : 265~265 INSERT>  (禮法)  <from file line num : 253~253 to file line num : 265~265 EQUAL>  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  <from file line num : 253~253 to file line num : 265~265 INSERT>  (抪髮)  <from file line num : 253~253 to file line num : 265~265 EQUAL>  을 하고 호복  <from file line num : 253~253 to file line num : 265~265 INSERT>  (胡服)  <from file line num : 253~255 to file line num : 265~267 EQUAL>  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  <from file line num : 255~255 to file line num : 267~267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55~255 to file line num : 267~267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55~257 to file line num : 267~269 EQUAL>  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뽑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INSERT>  (喪人)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EQUAL>  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INSERT>  (樊於期)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EQUAL>  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INSERT>  (武靈王)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EQUAL>  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  <from file line num : 257~257 to file line num : 269~269 INSERT>  (大明)  <from file line num : 257~261 to file line num : 269~273 EQUAL>  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  <from file line num : 261~261 to file line num : 273~273 DELETE>  새  <from file line num : 261~261 to file line num : 273~273 INSERT>  생  <from file line num : 261~261 to file line num : 273~273 EQUAL>  은 간 곳이 없었다.  <from file line num : 261~261 to file line num : 273~273 INSERT>  \_ |

|  |
| --- |
| 결과-version 2- diff\_print\_barsket(); |
| ﻿허<<새>>[[생]]전[[(許生傳) ]]  박지원[[(朴趾源) ]]  허<<새>>[[생]]은 묵적골[[(墨積洞)]]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허<<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雲從街)]]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벽씩>>[[변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새>>[[생]]이 곧 <<벽씩>>[[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새>>[[생]]은 <<벽씩>>[[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揖)]]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兩)]]을 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벽씩>>[[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벽씩>>[[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구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벽씩>>[[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 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 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樂)]]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새>>[[생]] 앞에 줄이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竹]]]를 엮고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배고프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벽씩>>[[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새>>[[생]]이 가서 <<벽씩>>[[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벽씩>>[[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말이오.[[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벽씩>>[[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벽씩>>[[변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새>>[[생]]이 잔뜩 역저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벽씩>>[[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벽씩>>[[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벽씩>>[[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벽씩>>[[변씨]]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 주려 했으나, 허<<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벽씩>>[[  변씨]]는 허<<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벽씩>>[[변씨]]는 그 때부터 허<<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  ]]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벽씩>>[[변씨]]가 5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利)]]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뭍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인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뀌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벽씩>>[[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자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拙修齋)]] 조성기[[(趙聖期)]] 같은 분은 적국[[(敵國)]]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磻溪居士)]] 유형��[[(柳馨遠)]] 같은 분은 군량[[(軍糧)]]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九王)]]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벽씩>>[[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벽씩>>[[변씨]]는 본래 이완[[(李浣) ]]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 대장이 되어서 <<벽씩>>[[변씨]]에게 위항[[(委巷)]]이나 여염[[(閭閻)]]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벽씩>>[[변씨]]가 허<<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 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異人)]]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벽씩>>[[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새>>[[생]]을 찾아갔다. <<벽씩>>[[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새>>[[생]]은 못 들은 체하고, [[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벽씩>>[[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禮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抪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뽑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새>>[[생]]은 간 곳이 없었다.[[\_ |